



◆ 어린이 해와 책에 관한 세미나(대한출판문화협회) 발표주제

## 세계 어린이와 책

김 한  
성실여자대학교수

### 1. 세계아동문학이 있기까지

인간은 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세계속의 각 부족공동체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옛날에……옛날에……”로 시작되는 이야기-전설, 신화들은-는 인간역사의 태초이래로 말해져 왔고 어른과 어린이사이에서 계속되어져 왔다. 조상들의 生の 근원을 보여주는 이러한 신화들을 들으며 어린이는 어른으로 자라갔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인간은 자기조상들의 삶의 양태를 알고, 자기생의 근원에 대한 확인과 함께, 자기라는 정체에 대한 긍정과 자기 삶의 의미를 얻게 된다. 이러한, 근원적인 것에 대한 삶은 또한, 生은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더 많은 볼 것이 있음을 키로 들을 수 있는 것 이외에 더 들을 것이 있음을 지금 보여지는 현실이 生の 전부가 아님을, 즉 生の 풍성함을 보게 한다. 이 두가지 기능 인간 生이 가지는 풍성함에 대해 보탬을 주고, 그 生の 의미를 열어주는 것이, (문자가 있을 후 구전되던 이야기가 책으로 기록되어져 읽혀지기 시작했을 때) 또한 책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의 경우, 구전되어오던 민담, 전설들은 독일의 메르첸이나 이솝에 의해 어린이를 위해 묶어졌고, 북구에서는 노르웨이의 안넨센에 의해 동화로 기록되었다. 인간역사이래로 어른, 어린이가 같이 나누던 이야기들이 특별히 어린이의 요구와 관심을 위하여 어린이의 고유한 개성을 독립된 것으로서 인정하며 이것을 충족시키도록 시도하게 된 것은 모든 생명체의 개성이 존중되는 낭만주의에 들어선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괴테의 낭만주의 문학과 샤프소의 에밀의 등장을 들 수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같은 작품은 중세이후 처음으로 “로망스”를 꽃피게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극이론이 지배적이던 중세 이후까지의 회곡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이 작품은 “로망스”에

대한 본격적인 동경과 추구를 열어줌으로써 오히려 소설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롯소의 에밀은,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인 어린이에게 그들 본연의 자유를 물려줄것을 고무한다. 이제까지의 대개의 서양 초상화에 그려진 어린이의 복장이 어른과 똑 같은 것으로서 ‘Size만이 축소된 의상을 보여주 듯 이제껏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었을 뿐이었다.

### 2. 어린이와 책

어린이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린이의 요구와 관심을 충족 시키기 위한 책일때, 이것은 “문학”과 구별되어, “아동문학”이라 부를 수 있다.

세계의 어린이 종류는 무한히 다양하다. 영리한 어린이, 중간정도인 어린이, 둔한 어린이, 벽촌어린이, 조그만 읍의 어린이, 도시북판에 사는 어린이, 교외에 사는 어린이, 이민은 어린이가 있는 가 하면, 행복한 가정출신의 어린이가 있고 긴장으로 얼어붙은 가정출신의 어린이가 있고, 훌륭한 집에 사는 어린이가 있는 가 하면, 빈민촌에 사는 어린이가 있다. 백인, 흑인, 인디안, 황색피부를 가진 아시안, 멕시코, 아프리카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사랑받지 못한 어린이, 숫제 방치된 어린이가 있는 반면, 사랑받고 소중히 길러진 어린이가 있다. 책벌레가 있는가하면 전혀 책을 안읽는 어린이가 있다. 이들의 차이는 무한하다. 그러나 그들은 깊이 닮았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편적인 관심과 욕구를 나눈다.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의 언제나 공통된다고 여겨지는 기본적인 욕구는 ①육체적인 행복에 관한 욕구 등 성장할이 소녀 ②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와 사랑받으려는 욕구 ③예속하려는 욕구(친구, 학교→도시, 국가→세계) ④성취하려는 욕구 ⑤변화를 갈망하는 욕구 ⑥알고자 하는 욕구 ⑦ 아름다움과 질서에 대한 욕구의 일곱가지로 들어진다.

한 어린이의 욕구는 처음에는 폭좁고 강하게 개인적인 성격을 떠나 성숙해 갈에 따라, 그 폭이 넓어지며, 보다 널리 사회화되어 간다. 그들이 취하게 되는 방향은,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유년기 몇년동안, 그 어린이가 접하는 경험에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면, 폭력적이고 사랑없는, 때로는 “싸이코”를 보여주는 어른들과 함께 살면서 시달린 어린이의 경험과 따뜻하게 뒷받침해주는 가족의 자양분을 받고 길러진 사랑받는 어린이의 경험간에는 비극적인 차이점이 있다. 어린이는 그의 욕구들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면서 개인적인 행복과 사회적인 성인간의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추구를 영원히 계속해간다. 그것은 쉬운 과업이 아니다. 어린이책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것을 도울 수 있다. 특히 이 책이, 어린이의 지적력있는 관찰자이며, 그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감수성이 민감하면서도 생각깊은 어른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면, 이 책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어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어린이와 주위의 어린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보다 잘 주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의 아동책은 어른책들의 경우처럼, 도무지 신빙성이 없는 휴지같은 책으로부터, 믿기 어려운 정도로 정확하고, 영원히 의미깊은 책들에 이른다. 어린이와 책을 같이 놓는 작업을 위해서는, 그 수많은 책중에서 보배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인가 선정할 판단기준을 필요로 하게된다. 이때 꼭 기억할 것도, 어린이들이 그 책을 즐길 수 있을 때만이, 어린이를 위한 좋은 책이라는 사실이다. 어른들이 고전이라고 취급하는 책일지라도, 어린이가 그 책을 읽을 수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해 지루해한다면, 그 책은 보잘것 없는 어린이 책이다. 어린이를 책과 함께 놓는 작업을 위해서 이 작업에 참여하는 세계의 모든 어른들은 많은 분야에 걸친 수백권의 책들을 알고 그 가치와 한계성을 파악하며, 또한 이 책이 의도하고 있는 대상인 어린이를 그들의 관심과 욕구를 알기 위해 노력해 왔다.

### 3. 현대교육과 세계아동문학

인간을 “제멋대로 굳어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게 하려는 것” 이 교육의 목표라고 압축한다면, 이 목표를 놓고 너무 강압할 때 주입이 됨을 경험하게 된다. 현대교육의 속제는, 「어떻게 하면, 주입이 아니면서, 제멋대로 굳지않게 하는가」이다. 이에따라, 현대의 인간교육은 새로운 자세를 모색했고, 현대의 아동문학은 새로운 주제를 탐색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인간교육의 새로운 자세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 모색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보여진

다. 한 독일의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神에 관한 물음을 던졌을 때, 어머니는 가능할 수 있는 명제를 다양히 제공해 주고, 각 명제의 장점과 아울러 한계성을 함께 제시해준다. 어머니는 「하나님은 있어?」라는 어린이 물음에 「있어(유신론)」 「없어」 「있어도 없어도 무관한 거야」라는 세계의 명제를 던져준다. 그런데 「있다」라는 유신론의 경우,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다해주니까 참 좋다(장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있으면 독재가 되기 쉽다(단점)”는 것을 보여주고, 「없다」라는 무신론의 경우, “하나님이 없으면 독재할 열려는 없으니까 좋은데(장점), 사람이다 하는 것이 되니까 안좋다(단점)고 덧붙여주고, 세번째의 경우는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나은데(장점) 「있다」라고 하던 착실히 교회에 잘 나갈 것도 괜히 게을러질 우려가 있어서 좋지 않다(단점)는 것을 밝혀준다. 이 제시속에서 어린이 본인이 해답을 모색하게 한다.

어린이에 대한 이러한 어머니의 교육자세가 가능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큼 책이 다양하고, 아동문학이 세분되어 있다.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덴마크를 가든 국가전역에 걸쳐 그 구의 주민들이 이용할 공공도서관이 반드시 있고, 반드시 이 속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여기엔 온갖 종류의 책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어린이는, 이 다양성속에서, 포괄적인 조망과 함께 자기 철학을 형성해가고, 자기선택을 익힌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신념과 증거를 느낀다. (그 어린이의 기호, 능력, 적성에 비추어 “순경”이 가장 적합한 어린이는, 어머니가 보여주는 “시신을 해치는 아주 나쁜 도둑을 아주 멋지게 잡는 순경에 관한 책”을 대하고는 환호성과 함께 자기선택을 “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자기증거를 새긴다)

### 4. 21세기의 인간상과 아동문학

그 시대에서 나온 한편의 책은, 그 시대정신을 반영해주고 우주와 사물과 인간에 대한 저자의 해석과 이해를 보여준다. 1960년대에 들어 오면서 세계는 변하고 이 변화는 세계의 인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아동문고의 내용을 달라지게 했다. 1960 년대 이후의 구미 아동문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이나 안멜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작업을 들 수 있다. 이 방법도 훗살의 현상학의 대두와 더불어 전통적인 방법은 성인이 본 어린이의 세계지만, 현대는 어린이가 본 어린이의 아름다운 세계를 묘사하는 작가를 뛰어난 작가로 본다.

둘째, 역사는 강자에 대한(또는 의한) 기술이고 강자들의 것이었으나, 현대는 역사상에서 약자로 그 이

름조차 기록되어 있지않은, 약소민의 진실을 찾아 작가들이 그것을 동화라는 이름을 부쳐 참된 진실을 밝히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셋째, 21세기는 모험과 탐험을 통해 미개인의 대륙이나 금은보화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주인공들에게 모험물이나 탐험물을 읽히지 않고 예컨대, 조그만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을 인간의 최대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 많다.

보물섬과 장글북이 나오던 시대는 식민지정책이 진행되고 개척해야 할 새 땅이 있던 시대였다. 이 당시, 위험을 무릅쓰는 도전과 모험은, 큰 의미와 가치를 떠는 것이었다. 이런 세계와 가치관속에서 어린이는 보물섬을 동경했고 헝클베리핀의 모험을 사랑했다. 그러나 정복시대에서 화해시대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세계관에 따라 인간관도 변하게 되었다. 이제 세계는 양육강식의 지배주의나, 직업의 우월성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과 자연과 동물이, 너와 내가 서로 이웃이 되어서 도와가며 사는 소박한 행복을 꿈꾼다.

21세기를 향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아동문학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영국의 Rosemary Garland(로즈메리, 갈랜드)가 쓴 *The County Bus*(시골버스)는 낡은 시골버스를 운전하는 나이많은 할아버지를 둘러싼 이야기다. 이 시골버스는 너무 낡고,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언덕을 오르지 못해 아이들이 학교에 지각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새 버스를 구입하고 젊은 운전수가 왔다. 차도 새차고, 운전수도 젊어 학교에 빨리오게 되지만, 어린이들은 옛날처럼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젊은 운전사는 할아버지처럼 차를 세우고 숲속에 들어가 짐승들과 새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할아버지를 도울려고 애를 쓴다. 한 어린이가 할아버지에 대해 쓴 작문은, 문계삼을만하다 하여 장학사에게 보내진다. 직접 시찰 온 장학사는 이 할아버지를 그 지방의 동물의 사는 모습을 교육하는 지역 순회자연구사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어린이의 도움으로 할아버지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곳의 어린이들을 숲속으로 데리고 다니며 토끼가 어떻게 집을 짓고 새가 어떻게 새끼를 까는 지를 보여주며, 평생을 보내게 된다.

다른 영국작가인 A. Stephen Tring(스텝슨·트링)의 *Peter's Busy Day*를 보면 집이 다섯채 있는 조그만 시골에 살고 있는 소년 Peter가 주인공이다. 소년은 국민학교 5학년인데 그의 꿈은 읍에서 출판하는 신문사의 기자가 되는 것이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년은 열심히 일한다. 소년은 동네의 집마다 심부

름을 해주며 번 돈을 저축하여, 조그만 프린트기를 사서 신문을 만든다. 12부 옆집할머니 1부 우체부 1부 자기 손으로 만든 신문을 돌리며, 소년은 성취감을 맛본다.

이 이야기는 조그만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을 그리고 있다.

그 외에, 역사속에서 잊혀졌던 진실을 부각해주는 현대의 아동문학을 살펴보자면 미국 작가 Scott O'dell(스콧트·오델)의 *The Island of Blue Dolphin*(푸른 돌고래 섬)을 들 수 있다. 로스웰켈레스에서 멀리 떨어진 푸른 돌고래의 섬에는 조그만 씨족이 살고 있었다. 러시아의 선원들이 그 섬에 와서 물개 사냥을 하면서 마을사람들을 죽였다. 그 섬에서 소녀는 혼자 살다가 끝내는 인간들의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가 그리워 백인의 배를 탄다. 그것으로 그 민족은 역사속에서 사라졌다는 이 슬픈 이야기는, 현대세계 아동들에게 온 감동을 안겨주며 현대의 아동문학의 하나의 고전으로 꼽히기도 한다.

보다 더 어린 독자들을 위한 그림책으로서, 현대 아동문학의 특징을 부각해 주는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의 Leo Lionni(레오·리오니)가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썼던, *Swimmy*(스위미)를 들 수 있다. 바다 밑 한 구석에 한 배의 작은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들중에 형제들보다 수영을 더 잘해서 "Swimmy"라고 불리는 물고기는 까망고, 다른 물고기들은 모두 빨강색이었는데, 어느 운수나쁜 날, 날씨가, 사납고, 무척 굶주린 다랑어가 돌진해와서는, 한입에 이 작은 빨간 고기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혼자만이 살아남아 도망쳐 나온 스위미는 길고 축축한 세계를 헤엄쳐 갔다. 스위미는 놀라고, 외롭고 아주 슬펐다. 그런데 바다 깊은 곳은 경이로운 생물들로 가득차 있었다. 무지개 빛 제리로 만들어진 해파리, 물뿔는 기계같이 걸어다니는 가재, 회한한 물고기들, 설탕과자바위에서 자라나는 해초들의 숲, 너무 깊어 끝도 보이지 않는 뱀장어, 바람에 날리는 분홍 및 종려나무같은 바다아메모네 등 이런것들을 혼자 구경하던 스위미는 마침내, 해초로 덮힌 어느 바위구석에서 자기와 같은 작은 물고기의 한 배를 발견한다. 스위미는, 행복해하며 같이 가서 헤엄치며 여러가지를 구경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작은 빨간고기들이, 큰 고기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 무서워서 갈 수 없다고 대답하자, 스위미는 그렇게 가만히만 있지 말고 「무언가를 생각해내자」고 하며, 궁리하기 시작한다. 생각이 떠올랐다고 기뻐하는 스위미의 제안은, 「바다에서 제일 큰 물고기처럼 모두 함께 헤엄쳐 가는 것」이었다. 빨강색인 물고기들은, 스위미의 제안대로 물고기몸의 형태를 이루며 서고, 까

망인 스위치는 눈이 위치할 자리에 들어가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되어 큰 고기들을 물리치며, 증일 해엄쳐다니며 놀았다는 이야기 이 책은 미국에서 해마다 최우수 그림책에게 안겨주는, 캘더콧상(Caldecott Honor)을 받기도 했다.

### 5. 현대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문제점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현재 읽히고 있는 아동문고는 이솝, 그림, 안델센을 비롯한 1950년대 이전에 활동하던 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아동문고의 레파토리는 이십년전이나 지금이나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아직도 전근대적 작품을 많이 읽혀 어린이들의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 예를들어, 보물섬같은 모험물을 읽고 모험할 마당을 잃었을때 어린이의 성격은 투쟁적이고 자극적일 수 밖에 없고 도시집중의 기현상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물론, 보물섬이나 장글북이 주는 이로운 점도 있다. 도시속에서 자연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는 점이다.

그러나 고전은 고전으로서 그 가치가 찾아져야 하는 것이지, 대체 물로서 가치가 찾아질 수는 없다. 정복을 유발하는 작품이 정복할 땅이라고는 중동밖에 없는, 오늘날의 어린이를 지배하게 될 때, 결국 그 작품은 허무한 꿈이나 허욕만을 키워주기 쉽다.

세계의 변화에 따른 세계관의 변화와 아울러 응답와져야 할 인간관의 변화가 오지못한 까닭에,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물이 저변에 깔고있는것은 출세와 성공주의의 지향이다. 이것은, 어른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금을 통해 천편일률적으로 어린이에게 주입되어온 이념은 “큰 뜻을 품으라”는 것이었다.

이 “뜻”이란 한 어린이의 개성과 적성, 기호, 능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다 더 높은 자리에 도달하라는 뜻이다. 어느 어린이에게나 주입되어온 이 이념은, 미래에 만명의 어린이에게서 만명의 대통령이, 혹은 만명의 사장이 나왔을 경우의 문제를 전혀 방기한 채, 만연해 왔고 또한, 부모의 현재 직업을 무시하라는 것과 일관하는 이 가르침을 주입하는 어른들은 동시에 충효사상을 강조하는 아이로니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출세 성공주의가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전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간혹 몇몇 아동문학가들의 고운 동화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아동문고 뿐 아니라, T.V 영화전체를 통해 압도적인, 자극적인 것과 상업주의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런 작품들자체를 살펴볼 때, 그것들이 꿈기도 하고 아름답기는 하나, 구체적이지가 못하고 2000년대의 어린이상

이 확실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세계의 아동문학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나라 아동문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아동문학가들이나 출판업자가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하다.

② 흔히 이야기하는 철학의 빈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인간상과 세계관이 설립되어 있지 못한채, 이 미래의 인간상과 세계관에 대치하는 한국인상이 서 있지 않다.

③ 작가의 좁은 세계가 지니는 한계성 ;작가의 좁은 시야와 세계에서 보편성을 끌어내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다.

④ 분석적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인간은 근원을 가진 존재다. 현실을 보여 주면서도 투명하고 아름답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다분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버린 원인으로서, 출판계, 아동문학가, 부모에게 모두 공동책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① 출판계의 상업성 치중현상 ;더 높아지려하고 끝없이 올라가려는 것은 어린이에게 “먹혀들어” 갈 수 있다. 그것이 비록 “허구”임을 알더라도 「원더우먼」이 잘 팔린다. 그런데 “먹혀들어”간단하여 언제까지나 이런 것만 만들어 내느냐가 문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사회현실속에서 안 먹혀들어 가는 것을 「예를 들면, 한 병원 구석에서 묵묵히 충실히 일하는 이름없는 간호원도, 원더우먼이나, 여사장 못지않게 훌륭하고 멋질 수 있다는 것들」 어떻게 안겨주는가가, 문제이다.

② 아동문학관계자의 어린이세계에 대한 물이해 ;

가. 어린이 세계에 대한 물이해 ;막연히 “어린이들은 이럴 것이다”라고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이를 보는 것이 문제다.

나. 정서의 문제점 ;외국의 경우 확고한 자기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동문학가인 어른들의 정서가 미약할때가 많다. 또 우리나라의 아동문학가는 자기가 자라날 때의 정서를 밀고 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요즘의 어린이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발전해 나가기 필요하다.

다. 고민과 철학의 결여와 작업에 임하는 태도 ;화가 이중섭의 경우처럼, 고통을 겪고난 후에 보여주는 환상과는 달리, 아동문학가의 80%를 이루는 아동문학가들은, 절실한 자기고민끝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마련되기전에 안이하게 작업에 임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 같다. 이현주, 권종생, 권홍철같은 자기고민이 보여주는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의 고민에

동참하려는 몸부림이 아쉽고, 갈수록 완속하여져 가는 외국의 아동문학가와 달리, 우리나라 아동문학가는 이러한 성장이 보여지지 않는다.

피터·팬을 쓴 에딘버러대학의 총장은, 몇번씩이나 고민하면서, 아이들의 고통과 정서에 완전히 동참하려 애쓰며 고쳐쓰고 또 고쳐쓰기를 거듭했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아동문학가가, 아동문고의 권두언에서 “나는 어른의 세계에 싫증이 날 때, 동화를 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오류다.

아동문학은 어른의 세계에 싫증이 난 어른이 소풍가는 장소가 아니다. 아동문학작가라면, 어린이의 세계에 소풍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야 한다.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ㄷ. 설티멘탈리즘 ; 해결책이 없는데 부정적인 측면만이 부각되고마는 감상주의는 우리나라 어른의 문학에서 처럼, 어린이 문학에서 만연하고 있다. 근대화이후, 불가피하게 초가지붕이 벗겨졌을 때, 아동작가는 벗겨진 초가지붕, 없어진 초가에 대한 향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생활공간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아름답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Leo Lioni의 스위미의 스위미는 잃은 물고기 형제들로 인해 외롭고 슬펐다. 그러나, 이 슬픔은 넓은 바다속에서 이웃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지혜를 압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③ 부모들의 몰이해 ; 출판계와 아동문학가가, 바람직한 아동문고를 만들어 내놓았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문제다. 서구의 아동문학 강의 첫 시간에 제일 처음으로 언급되는 이야기는 “어린이책은 어린이 스스로가 고르도록”하라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문고를 어린이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선택하여 대출하는 예는 거의 없다.

「수지부모는 신체발부라, 불손체상이 효지사야」라는 말처럼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가 그 본연의 자유나, 독자적인 세계를 누린 적은 거의 없었다. 한국의 어린이나 어른의 가치관 아래서, 어른이 바라는 image가 되어야 하는 의무를 날 때부터 타고난다. 어른의 가치관 자체가 문제일 때 어린이의 미래상은 문제다. 문(학문), 사(관리), 청(정치)이 지배적인 가치를 이루어온 한국역사속에서, 기술관은 아무런 탁월해도 정 7품에서 머물던 사회구조속에서, 이도령의 과거급제는 춘향전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것은 당연했다. 세계도 변했고, 우리나라도 변했으며, 변한 세계에 발맞추어갈 역학도 변한 이제 부모인 어른은, 미래의 어른이 될 그들의 어린이에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시골버스에서 장학사가 노인에게 안겨준 것은 거액의 돈도, 거창한

지위도 아니었고, 시골소년 피터의 꿈은 결코 「런던·타임즈」의 기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부모는, 어린이에서 출발하여, 그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만큼 친절해져야 한다. (어린이경시풍조는 이러한 친절의 결여가 당면한 문제인 바로 현재의 문제이다) 그때에만이, 부모는 어린이가 어떤책을 필요로 하는지를 가장 잘 파악하게 될 것이다.

## 6. 결 론

오늘날 바람직한 세계아동문학의 정의는 어린이에게 즐거움, 새로운 조망, 다양한 경험들, 인간행위에 대한 통찰력, 인류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큰 뜻을 품으라”는 우리나라가 어린이에게 강조하여 오던 가치관은 「자기선택에서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누리라」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사회의식의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동문학도 또한, 어른문학과 더불어, 설티멘탈리즘을 주목하고 이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것과 근원적인 것에 대한 동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에서 다윈이 다윈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것 때문이며, 현상 저편에 있는 어떤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 한 어린이는 성장과정을 통해 거쳐갈, 무의미와 고통, 좌절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세계아동문학에 비추어본 우리나라의 제문제를 해결해 줄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서 Public library(공공도서관)의 범 국가적인 보급이 요청된다. 서울중심부에도, 동해안에도, 강원도 산골에도, 그 지역과 인구에 비례해서 필요한 숫자의 도서관이 외국처럼 골고루 보급될 수 있다면, 한 의식있고 양심을 가진, 아동문학 작품을 내어 놓으려고 할때의 아동문학관계자의 고민은 기본 수의 소화 해결될 것이고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범국가적인 보급은 불가피하게 상업성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출판계의 고민을 해소하는 동시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양서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어머니와 아동의 교육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지성과 교육이 재투자될 수 있는 여건(미국경우, 종로구만한 크기의 지역에 최소한도 두개 이상이 있는 이 도서관의 어린이도서 사시는 매개는 나이저곳한 어머니들이다.)과 탁아소나 어린이센터의 보급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어머니가 어린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면서 자기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리하여 자신과 가족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물론 어린이는, 그들의 보고 속에서 주인인 것이다.